

백악관 "트럼프 방중 일정에 김정은과 회담 계획 없어"

등록 2026.05.05 07:28:35



[센토사=AP/뉴스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모습. 2026.05.05.

[워싱턴=뉴스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한과의 접촉 계획에 대한 뉴스시스 질의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위해 오는 14~15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중은 당초 3월말로 예정됐으나 이란 전쟁 여파로 한달반 가량 미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시절 김 위원장과 세차례 직접 회동했고, 2기 행정부 들어서도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에 이번 방중을 계기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나 백악관은 선을 긋고 나선 모습이다.

그러나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 외교 스타일을 감안하면 접촉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방한길에 오르면서도 돌연 최재진에 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